

아이돌보미 이용 느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 워킹맘만 속앓이

월평균 대기수 전국 1039가구… 광주·전남 32가구

임금 등 종사자 처우는 열악…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내년 2월 복직을 앞둔 회사원 A 씨는 네 살과 한 살짜리 두 아이를 맡기려고 정부의 아이 돌보미 사업에 신청했지만 해당 거주 지역에만 200명이 대기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

또 다른 회사원 B씨도 복직에 앞서 영아 종일체를 신청했지만 올해 안에 돌보미 연결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 결국 민간 업체를 통해 아기를 맡길 사람을 구해야 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및 대기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아이돌보미 사업의 월평균 대기 가구 수는 시간제의 경우 28가구, 종일체는 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시간제 81 가구·종일체 3가구)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국 월평균 대기 가구 수는 시간제

의 경우 888가구, 종일체는 15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시간제 대기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인천(403가구), 경기(178가구), 서울(96가구), 제주(79 가구), 부산(41가구) 등의 순이었다. 영아 종일체의 경우 서울 49가구, 경기 41가구, 경북·제주 1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부족해 상당 부분 민간베이비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민간의 경우 전문성과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아이돌보미의 이직률과 종도 포기자를 줄이도록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 베이비서비스에게 상당수 아이가 맡겨지는 현실을 감안해 조만간 베이비서비스의 교육 이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2만9609명 중 5799명(19.6%)이 활동을 포기하거나 중지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의 이직률(19.7%)은 일시일용직(18.4%)보다 높고 우리나라 평균 이직률(4.7%)의 4배가 넘는다고 인재근 의원은 전했다.

이는 민간 업체의 베이비서비스보다

정부의 아이돌보미가 시간당 임금이 1000~2000원 적은 것과 무관치 않다.

여성부가 지난해 아이돌보미 944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의 39.7%(3749명)가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데서도 드러난다.

여성부는 애초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 당국의 반대로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인재근 의원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부족해 상당 부분 민간베이비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민간의 경우 전문성과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아이돌보미의 이직률과 종도 포기자를 줄이도록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 베이비서비스에게 상당수 아이가 맡겨지는 현실을 감안해 조만간 베이비서비스의 교육 이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2만9609명 중 5799명(19.6%)이 활동을 포기하거나 중지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의 이직률(19.7%)은 일시일용직(18.4%)보다 높고 우리나라 평균 이직률(4.7%)의 4배가 넘는다고 인재근 의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시간제 81 가구·종일체 3가구)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국 월평균 대기 가구 수는 시간제



'아이 돌보미' 사업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돌보미 활동가 부족으로 대기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요양보험 부당청구, 종사자도 수급자도 법적 제재

복지부, 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 마련

보호사 자격취소·정지… 이용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을 거짓으로 타기는 데 가담한 요양보호사와 수혜자도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을 허위로 타기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때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를 아우르는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청구에 가담한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이에 협조한 이용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정 결격사유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요양등급 판정과 종사자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 각 부처의 복지사업 수급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거짓으로 등급을 받아낸 이용자는 걸러낼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정보가 요양보험 정보망에 연계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지난 8 월 요양보험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이용자 유인·알선행위 처벌과 위반사실 공표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제재까지 아우른 포괄적인 재정누수 방지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성실한 복지용구 공급업체는 요양비를 이에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불량 용구 제공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요양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강경보험이 공단에 현지조사 전담인력도 보강된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제재, 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지난 8 월 요양보험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이용자 유인·알선행위 처벌과 위반사실 공표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제재까지 아우른 포괄적인 재정누수 방지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베이비부머 노후설계 돋는다"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종합포털 운영

곧 퇴직을 맞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취업·재무·건강 등의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4일부터 베이비부머 종합포털(www.activebb.kr)을

7개 분야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사이트 개설을 기념해 오는 14일까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활동 수기 공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회복지기관·민간단체·보건

의료·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보내면,

우수작을 뽑아 상금과 상품을 즐

여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베

이비부머 종합포털(www.activebb.kr)에 공지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금·부동산·금융) ▲건강(건강 상식 등) ▲여가(문화 예술 공연·생활자원) ▲자원봉사(국내외 자원봉사) ▲통계(인구동향·개인특성·건강·생활수준·경제활동·사회참여) 등 7개 분야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사이트 개설을 기념

해 오는 14일까지 '베이비부머 사

회공헌 활동 수기 공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회복지기관·민간단체·보건

의료·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보내면,

우수작을 뽑아 상금과 상품을 즐

여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베

이비부머 종합포털(www.activebb.kr)에 공지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 '문전성시'

고령화시대 맞아 유망직종으로 각광

최근 장례지도사 교육생을 양성하는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이 구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례지도사가 유망직종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원은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광주·전남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장례지도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구직자는 모두 100명. 기존 민간자격증을 가진 실무경험자 교육생까지 합하면 모두 400명이다.

교육원은 장례학개론·장사법규·장례상담·공중보건·위생관리 등 8과목을 개설한 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300시간의 강의만 이수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30일(주간반)~75일(야간반) 가량이다. 교육원은 또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장례식장·상례회사 등 장례관련업체에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다.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 김현국 이사는 "최근 장례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국비지원 승인을 받았다. 실업자의 경우 교육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062-223-7844.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진시황칠봉선본점

남구 봉선동 롯데수퍼앞 2층② 맞은편
횡성남삼겹살·횡성남짜장면·횡성남짜장면
횡성남짜장면·횡성남짜장면
횡성남짜장면
단체예약환영, 체인점 모집중
(062)654-0173

YONAMJA(총장로점)
동구 총장로2가 128번지 다이소2층
파스타, 피자, 필리프
샐러드, 스테이크 전문점
(062)229-5252

금탑소머리국밥(예술의거리점)
대전 동31-1번지 금남지구 대피소옆
소머리국밥, 소양국밥, 흥국국밥, 해물국밥
대표 정은숙
(062)673-7971

고전방

동구 궁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서양화·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영마트

북구 두암동 기산로앞타운1층
제주도 직송 감귤(한리봉)
1t차량(소유자)으로 판매하실분
월수입500만원보장
(010)9996-9480

선재영술원

서석동 남동천주교정문구나편 신양촌2층
시주, 관상, 운무, 궁합, 성명학, 택일
승진운, 이시운, 묘지상담
대표 천명남
(062)225-4125

한우狎갈비전문점(첨단점)

광산구 생암동 664-6번지 첨단병원앞
한우狎갈비, 꽃등심, 안창살
최선의 서비스
(062)971-5666

두암사우나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뒤 온리원앞
최신시설완비로 신규오픈
쾌적한 환경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대표 이춘봉
(062)261-5777

우리옷빛고을

궁동 62-3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벽면
우리옷 한복 전문점
(062)227-6730

바위섬횟집

삼각그린이발관

북구 삼각동 그린타운@상가 108호
염색 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062)574-6584

가디언엔젤스

학동 628-1번지 허먼시아자입구
병원동행서비스, 등교/등학원서비스
이어/ 노인 돌봄 서비스
(062) 222-0882

진도맛집

현대헬스크럽

광산구 월계동 817-5번지 LCT아워
비자리회무침, 우렁회무침
점심 : 애호박찌개, 우렁쌈밥
대표 고광숙
(062)971-4488